

# 다도해 풍광 즐기며 문학 창작의 꿈 펼쳐요

진도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26~28일 '해변시인창작학교'  
특강·시화그리기·체험 등 다채

나태주 시인 특강, 정일근 시인 특강, 국악 한마당, 시낭송, 시화 그리기, 부채시화 만들기, 갯벌 체험, 국악한마당...  
올해도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진도군 임회면 죽림리)을 비롯해 인근에서 해변시인창작학교(시인창작학교)가 열린다.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관장 이지업)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박물관 작가의 집을 비롯해 인근 임회면 바닷가 등에서 시인창작학교를 연다.



지난해 열린 진도해변시인창작학교 행사 장면.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홈페이지>

시인 나태주의 특강을 듣는다. 반편성(10명 내외)과 방배정, 담임과 부담임을 배정 받는다.  
나태주 시인 외에 고정욱 시인(27일), 정일근 시인(28일) 등 특강도 예정돼 있다.  
국악한마당에서는 아리랑, 강강수월래 따라부르기가 펼쳐지며 한중협회 김해숙 회장과 회원들은 진도 한춤을 선보인다.  
문학 창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반별 창작모임은 3일간 담임, 부담임과 함께 창작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갯벌 체험(안전 조지 통제 지시에 따라 진행)을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시화 그리기, 애완돌만들기, 부채시화 만들기도 예정돼 있다. 백일장도 진행되고 시낭송 지도도 펼친다. 특히 반별 창작 모임은 담임과 부담임이 맡아 펼칠 계획이다.  
이지업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장은 "해변시인창작학교가 열리는 무렵이면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낭만이 깃든 진도해변에서 문학인들이 창작의 열망을 키워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진 제1회 '틴틴버스킹' 시상식 모습.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 전국 끼쟁이 청소년들 다 모여라~

'제2회 틴틴버스킹' 참여자 31일까지 모집... 10월6일 결선무대

"재능, 꿈 있는 청소년들 다 모여라!"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이 오는 10월 '제2회 틴틴버스킹 월드컵'을 펼친다. 이에 앞서 재단은 경연에 참여할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제3회 광주버스킹 월드컵' 일환으로 펼쳐지는 청소년 대회다. 최우수상 100만원(교육감상)을 비롯해 총 11팀을 선정해 총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래, 연주, 댄스 등 공연 실연이 가능한 청소년(14~19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공연영상 1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예선을 거쳐 버스킹 월드컵 마

지막 날인 10월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하늘마당 무대에서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지난해 경연에서는 서울·대구·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출전한 12팀이 열린 경연을 펼친 바 있다. 이를 통해 '어벤져스'(최우수상), 'KJN파워댄스'(금상), '원스밴드', '스피나지', '청주농고' 등 8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창현 대표이사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틴틴 버스킹 월드컵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고 자아를 실현했으면 한다"며 "참가자들이 광주와 동구의 '꿈쟁이'를 알게 되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독이 든 버섯 피자에 담긴 사랑, 배신, 증오

강숙자오페라라인 '버섯 피자'  
13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지난해 강숙자오페라라인이 선보였던 '일트로바토레' 공연 장면. <강숙자오페라라인 제공>

현대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하나인 '시모어 바람'은 1988년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오페라 '버섯 피자'를 완성했다. 만남과 사랑, 배신과 증오 등 주인공들의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는 블랙 코미디로, 독이 든 버섯피자를 두고 일어나는 촌극을 그렸다.  
강숙자오페라라인(대표 강숙자)이 오페라 '버섯 피자'를 오는 13일 오후 3시, 7시에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불륜꾸아 역에 서혜원·정수희, 포비아 역에 박혜민·박선경 배우가 출연하며 김희열·조규철(포르마지오), 나영오·윤승환(스코르피오) 등이 열연할 예정이다.  
극중 포르마지오 회장은 첫 부인이 죽고 난 뒤, 젊은 여인 불륜꾸아와 재혼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직전 젊고 매력 넘치는 스킵피오와 사랑에 빠져 결혼 후에도 몰래 만남을 이어간다. 포르마지오 회장이 죽어야 자신이 많은 유산을 상속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불륜꾸아는 독버섯 피자로 남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  
한편 사냥에서 돌아온 회장은 비서 포비아에게 아내의 계락을 듣고 분노한다. 회장은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집 안에 숨어있던 스킵피오를 찾아내 총을 겨누며 독이 든 버섯피자를 먹게 한다. 겁에 질린 스킵피오는 어쩔 수 없이 버섯 피자를 먹게 되는데...  
지휘는 러시아 국립 그네신스대 및 대학원을 졸업한 김병무, 연출은 극단 유피씨어터 대표 김하정이 맡았다. 총감독 강숙자는 경희대 음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독일 쾰른국립음대 성악과에서 수학했다. 미국에리조나주립대 초빙교수, 전남대 음악과 명예교수 등 역임.  
강숙자 대표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모두 깃들어 있는 오페라 '버섯 피자'는 시모어바람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중 하나"라며 "'사랑'과 '배신'이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모습을 마주하며 관객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디자인진흥원 '2D 그래픽 3D 모델링 메이커' 운영

시민 누구나 참여... 홈페이지 신청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임동디지털창작소에서 '2D 그래픽 3D 모델링 메이커'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5일부터 3일간 2D 그래픽 교육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과정이다. 2D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직접 디자인하고, 아크릴 스탠드 및 아트포스터를 출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과정은 오는 22일부터 3일간은 3D 모델링 교육으로 진행되며 '퓨전 360(Fusion 360)' 관련 프로그램 등을 익힌다. 교육생이 설계한 작품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은 시민, 어린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임동디지털창작소 주선희 팀장은 "시민들이 디지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창·제작, 체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창작소의 장점"이라며 "다양한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주민맞춤형으



지난 4월 운영한 디지털 창·제작 교육프로그램 모습.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동디지털창작소는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한다. 시민들이 디지털 장비와 SW를 활용해 문화상품, 생활상품 등의 창·제작,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메이커스 페이스다. 교육실과 3D프린터, 라텍스 출력기, 푸드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66종의 디지털 창·제작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